

# 안동시 공무원 60% “시의회, 인사·이권개입 개선 필요”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동시지부 시의회 의정활동 ‘부족하다’ 43% 베스트 시의원에 조달흠·남윤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동시지부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조합원 1,122명을 대상으로 베스트 시의원(2명) 선정 및 안동시의회 의정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조사의 익명성 보장, 중복평가 배제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리서치 및 전자투표 전문기업에 의뢰하였다.”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8일 설문조사 결과를 안동시청 내부망에 게재하고, 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하여 의정평가 설문조사 결과와 ‘베스트 시의원’으로 선정된 조달흠, 남윤찬 의원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이날 수상자인 조달흠 시의원은 “초선 시의원이지만 이렇게 시의원으로서 할 도리를 한 것인데 안동시 공무원 단체에서 이런 귀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향상 낮은 자세와 봉사정신으로



공무원노조는 지난 28일 ‘베스트 시의원’으로 선정된 조달흠 의원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더욱더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하고, 남윤찬 시의원은 “안동시청 직원분들의 뜻을 담아 주시는 귀한 상을 영광스럽게 받고, 보다 더 나은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안동시의회 의정평가 설문조사 실시 결과, 15가지 항목 중 ‘시의회 의정활동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 하는가’에 대해 ▲ 부족하다 43.4%(부족 25.5% +

매우 부족 17.9%) ▲ 보통이다 40% ▲ 잘한다 16.4%(매우 잘함 3.4% + 잘함 13%)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시의회 출석요구 시 시의원의 고압적인 자세나 인격모독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 없다 45.7%(없는 편이다 23.5% + 전혀 없다 22.2%) ▲ 보통이다 30.9% ▲ 많다 23.3%(많은 편이다 17.2% + 매우 많다

6.1%)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특히, ‘개인적인 청탁을 받은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 없다 58.4%(전혀 없다 34.2% + 없는 편이다 24.2%) ▲ 보통이다 25.1% ▲ 많다 16.5%(많은 편이다 13.2% + 매우 많다 3.3%)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시의원의 공무원 인사 영향력’에 대해서는 ▲ 크다 70%(크다 38% + 매우 크다 32%) ▲ 보통이다 23% ▲ 없다 7%(거의 없다 4.5% + 전혀 없었다 3.3%)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자료제출 등으로 업무에 부담을 느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 많다 51.9%(많은 편이다 32.9% + 매우 많다 18.1%) ▲ 보통이다 32.9% ▲ 없다 16.1%(없는 편이다 8.9% + 전혀 없다 7.2%)로 부담을 많이 느끼는 평가가 높았다.

‘시의회의 방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면 방안은’ 관련해서는 ▲ 기 제출된 자료나 중복된 자료요구 제한 59% ▲ 부서 당 또는 의원 당 자료 건수 제한 19% ▲ 회기 내에 한하여 자료요구 1년 이내로 제한 18.3%로 기록

했다.

‘시의회 및 시의원의 개선 필요 사항’과 관련해서 ▲ 인사 및 각종 이권개입(청탁 등) 59.3% ▲ 전반적인 업무 파악 부족 및 처리불가 민원 반복 요구 45.2% ▲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요구 40.5% ▲ 인격모독(무시, 폭언 등) 및 고압적인 태도 27.5% 순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시의회가 잘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 지역 현안 해결 및 주민갈등 해소 32.4% ▲ 시 집행부 견제와 균형유지 17% ▲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입안 활동 15.9% ▲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중간자 역할 13% 순으로 시의회를 평가했다.

유철환 안동시지부장은 “베스트 시의원으로 선정되신 조달흠, 남윤찬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설문 결과에 대해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과정으로 생각해줄 것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안동(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metroseoul.co.kr

## 암태~비금 연도교 건설사업 조기추진 청신호

### 연내 기본계획 수립 착수 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확정

천사대교와 추포대교를 지나 비금·도초도까지 육로로 접근하기 위한 암태~비금 연도교 건설사업이 숨가쁘게 추진될 예정이다.

신안군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24일 발표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후보사업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추포~비금 연도교 건설’, ‘암태 신석~단고 국도 개선’ 사업이 통과되었고, 국토교통부가 5년간 신규 추진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이 도로정책심의



천사대교 전경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제5차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 매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신규 설계부터 착수할 계획이며, 총 10조원, 116개 사업 모두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업 구간 내 고난도 공사인 남해서면~여수 신덕, 고창 해리~부안변산, 신안 비금~암태 3개 사업은 연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비금도초권역의 육로연결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포~비금 연도교 건설은 총연장 10.41km, 총사업비 3,827억원, 암태 신석~단고 국도 개선은 총연장 9.12km, 총사업비 582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향후 신안군에 총 4,409억원의 국비가 투입되어 연도교사업과 국도개선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남=안행주 기자 abcd@

### 신안군 철새 서식지 먹이공급 계약

신안군(박우량 군수)은 흑산공항 건설사업과 연계한 겨울철 철새먹이를 제공하기 위해 ‘철새 서식지 봄동배추 먹이공급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사업은 흑산면 예리, 진리 등 4개마을 42농가에서 우선적 시범사업으로 9월말부터 파종, 내년도 3월까지 먹이공급 봄동배추를 경작할 계획이다.

금년도 계획면적 8,500㎡보다 3배 이상 초과 신청함에 따라 참여농가 경작여건 등을 현장조사하여 17,030㎡까지 사업규모를 확대하였다. 사업유형은 봄동배추를 경작하여 미수확 잔치방식으로 겨울철 철새의 먹이로 제공하는 농가에 경작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흑산도는 평균 약 150종 이상의 철새들이 거쳐 지나가는 주요 이동통로로 잘 알려져 있다.

/전남=안행주 기자

### 한울원전 4호기 100% 출력 도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박범수, 이하 한울원전)는 “지난 6월 15일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한울4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가 9월 27일 발전을 재개하여 9월 29일 21

시 50분 100% 출력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한울원전 4호기는 이번 계획예방정비 기간 동안 연료교체 및 주발전기 재권선 등 각종 설비점검과 정비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발전설비의 신뢰성을 향상시켰으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검사 수검으로 안전성을 확인했다.

/경북=김태수 기자

### 광주 남구 ‘공예교실’ 참가자 모집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빛고을 공예창작촌 입주 작가들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슬기로운 공예교실’ 참가자를 공개모집한다.

‘슬기로운공예교실’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양과동에 위

치한 빛고을공예창작촌에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빛고을공예창작촌 활성화 및 공예산업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빛고을 공예창작촌 입주 작가들의 재능 기부 방식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작가들의 작품 및 공방을 관람하면서 작가들과 함께 다채로운 공예기술을 배우게 된다.

/전남=김태수 기자

## 경북도, 내년 2월까지 가축질병 특별방역

###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경북도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달 유럽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배나 많고, 중국·베트남·대만 등에서도 3배나 많이 발생해 국내도 어느해보다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북도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방역관련 단체 등은 다음달부터 5개월간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도는 철새가오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사람·차량 등 출입 최소화할 위해 규모가 큰 농장 10곳에 출입통제행정명령을 하고 5곳에는 농장 준수사항을 공고할 예정이다.

철새도래지 인근에서는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종오리·육용오리·토종닭 등 취약가금농장·시설에 대해서는



경북 상주시 소재 농장 인근 도로에서 방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뉴스IS

정밀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에 취약한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계류장 등에는 일제휴업·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전통시장별 전담관을 배치해 특별관리를 한다.

구체적 예방을 위해서는 10월 일제 백신접종을 하고 접종 1개월 후부터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 검사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고자 가을철 수확기 양돈농장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8대 방역시설을 12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한편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집중 포획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화순군, 하반기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하반기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소 사육 농가 578호 2만 3717두, 염소 92호 1만 1371두가 대상이다.

백신을 사전에 접종해 4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2주 안에 도축 출하 가축은 제외된다. 소 50두 미만과 염소 300두 미만 사육 농가는 공수의를 통해 직접 접종하고, 소 50두 이상 전업 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을 구입(보조 100%)해 자가 접종하면 된다. 군은 일제 접종 기간에

축산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고 예방접종이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우편, 문자발송 등으로 백신접종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군은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결과 양성률이 소 80%, 번식 돈·염소 60% 미만, 비육돈 3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기준 미만 전업 농가는 백신 보조금을 6개월 동안 감액하고,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